

바이크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러너스의 본성을 동시에 자극한다.

그 중 할리데이비슨의 입지는 특별하다. 할리데이비슨은 더 이상 바이크가 아니다.

이동 수단의 의미를 넘어선 문화의 상징이자 철학이다. 자유의 코드이자 새로움에 대한

동심 어린 설렘이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몸체와 V형 트윈 엔진의 진동 그리고

말발굽 같은 엔진 소리를 들어보라. 누군들 가슴이 뛰지 않겠나. 트윈 엔진과의 동조는

동심의 발로이다. 아이처럼, 그들이 할리데이비슨에 열광하는 이유이다.



# It's time to ride

*Celebrating 120 Years of Harley-Davidson®*



#36

**CHILDISH or CHILDLIKE**

뭐 어때



# 젊음은 한때지만, 철없음은 영원할 수 있다.

데이브 배리  
미국의 작가이자 스탠딩 코미디언

봄.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시작된다.  
순환되는 세상의 이치 속에서 다시 또 한 번 지금이 시작된다. 피어나는 모든 것이  
보이는 시기라서 '봄'일지도 모르겠다. 생애를 계절로 은유한다면,  
유년기는 봄일 수밖에 없다.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는 계절. '잇츠 타임 투 라이드' 봄호는  
2023년 모든 라이더의 기대와 희망을 표현하고자 한다. 다소 유치해 보였다면 의도가 명확히  
전달된 것이다. 사실 라이딩의 기쁨이라는 것은 '타봐야 아는 것'이기에,  
경험한 적 없다면 그렇게만 보일 것이다.



2023 SPRING  
Childish or Childlike

- 03 Editor's Note  
키덜트라 불러 고민하는 당신에게
- 06 Talk It Out I  
투어 마스터 김종한
- 12 Talk It Out II  
웰다잉 강사 이정환
- 18 Gottasadae  
그들은 왜 할리데이비슨을 좋아하는가?
- 20 Talk It Out III  
프로 스케이트 보더 정연수
- 26 Talk It Out IV  
아쿠아 스케이퍼 문목무
- 32 Talk It Out V  
주얼리 디자이너 임민정
- 36 Whos the Boss  
동심 or 동심 or 동심
- 38 OP  
반짝반짝 팻 보이!
- 42 #할리했어오늘도  
매일 매일 할리해요!!
- 44 HD Chronicle I  
할리데이비슨 120주년 기념 기획
- 52 2023 Harley-Davidson® Schedule  
이벤트 가득한 할리데이비슨의 2023년!
- 54 Harley® News  
할리데이비슨의 소식들

**IT'S TIME TO RIDE는 항상 라이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IT'S TIME TO RIDE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T'S TIME TO RIDE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마케팅팀 박순모 대리 | E - MAIL : joshua@khg.kr

**IT'S TIME TO RIDE를 통해 최고의 광고 효과를 누리보세요!**  
광고 담당자 :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마케팅팀 박순모 대리  
E - MAIL : joshua@khg.kr | TEL. 070-7405-8222

세상만사 모든 것에 ‘정도’라는 것이 있다. 평생 ‘과유불급’을 지겹도록 들어오지 않았던가.  
고통과 기쁨이라는 2개의 실린더로 구성된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대부분 고통을 크게 줄이고, 기쁨만을 맹목적으로 늘리기 위해 살아간다.  
과거의 고통은 과거의 기쁨보다 작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통을 감내하고 기쁨을  
희망하는 패턴이 늘어가기에 어른은 쉽게 ‘과거로의 회귀’를 꿈꾼다.  
사회적 시선, 주변의 반응, 나에 대해 별 관심 없는 이들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순도 높은 기쁨만을 좇는 이들에게 흑자는 ‘키덜트’, ‘애어른’, ‘철부지’라 부른다.

‘즐거움을 좇는 철들지 않은 어른.’

어찌 보면 극찬이다. ‘디깅(Digging)’이 우대받는 시대가 왔으니.  
라이더는 철들지 않는다. 할리데이비슨이라면 더더욱.  
이 책을 집어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도를 넘어서야 보이는 것도 있는 법이다.



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요.  
딱 일요일만 탈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할리만 타죠.  
일주일 동안 그  
하루만 기다려요.

타는 순간만큼은  
주변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타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충청도 부근은  
노을이 예쁘게 지는  
곳이 많아요.  
노을을 바라보며  
달리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는 지인들이 와서  
목공도 하고,  
라이딩을 떠나기  
전에 잠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는 이렇게  
계속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안 망가지는  
예쁜 할리를 타고  
할머니가 되어도  
여기저기 막 다니면  
좋겠어요.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철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에서  
저는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러 노력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위험하듯, 생각도 깊어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적정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할리는 아주 천천히  
달려도 재미가  
납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 I

: Talk It Out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은 티가 난다고 했다. 김종한 작가가 그랬다. 빨간색 비니에 노란색 바지를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에서 바람의 자유가 느껴졌다. 왜 수많은 라이더들이 그와 함께 달려보기를 희망하는지 궁금증이 풀렸다. 무덤덤한 표정 뒤에 감추어진 깊은 눈길에서 길에 대한 통찰과 관록이 엿보였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허영만 문하에 입문하여 만화를 그렸다. “허영만 선생님 작품 어시스턴트로 활동했는데, 1990년대 초, 문하에서 벗어나 독립했습니다.” 1990년대 초, 만화잡지 붐이 일었다. 보물섬을 시작으로 아이큐점프, 소년챔프, 땡기, 윙크 등이 잇따라 창간되었다. 만화잡지의 창간과 붐은 대본소 만화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유명 만화가 밑에서 어시스턴스로 일하던 이들은 곧 생계 문제에 직면했다. 자구책으로 만화잡지에 자신의 작품을 투고했는데, 김종한 작가 역시 “1991년, 월간 보물섬에 단편만화 ‘환상여행’을 연재하면서” 정식 만화가로 데뷔했다.

글. 남석기 — 사진. 최지원

## 김종한

고독한 러너,  
그냥 바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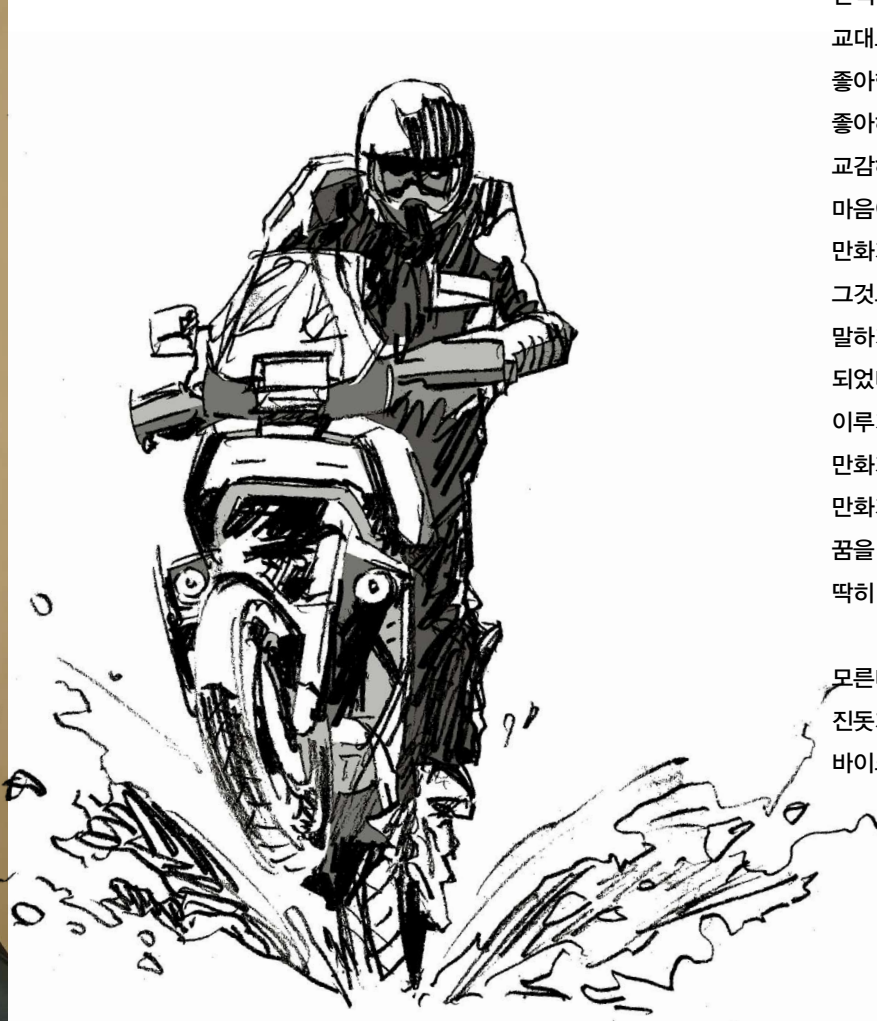
IT'S TIME TO RIDE







팬 아메리카는 할리에서  
처음 시도하는 기종이고  
스타일도 기존 할리와 달라  
불리한 면이 많았을  
겁니다. 또 라이벌 제품도  
굉장히 많고 다양해서  
비교된 부분도 있고요.  
팬 아메리카를 라이벌 제품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나  
재미부분에서 꿀릴 게 전혀  
없고 충분합니다.



첫 작품에 대한 기억을 물었다. 심령, 신비적 내용인 것만  
기억난다고 한다. 하도 오래 전 일이고 또 오랫동안 연재한 게  
아니어서 그렇단다. 이후 아이큐점프나 소년챔프 같은 잡지에  
본격적인 만화 연재를 했다. 그 중 하나가 장편만화 ‘화이팅  
바람이’이다. 연재 후 10권짜리 장편만화로 발간했는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화이팅 바람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진돗개  
극화이면서 만화가 김종한을 기억하게 만든 그의 대표작이다.  
그는 무협만화 증권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 작품을  
선보였다. 그럼에도 ‘화이팅 바람이’가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  
받는 것은 그의 심성이 동심이기 때문이다. 진돗개 바람이의  
여정은 곧 모험심 가득한 작가의 동심이다. 자유로운 발상과  
어린이다운 창의력 없이는 그릴 수 없는 순수의 세계. 주인공  
이름 ‘바람이’에서도 그의 동심이 드러난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감도 좋고 산책할 때 솔솔 부는 바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바람이에요.” 작가의 마음이 투영된 이름이라고  
받아주자, 해석이 좋다며 손을 내두른다. “그냥 지었다니까요.”

그는 한때 진돗개 17마리를 길렀다. “만화 그리느라 엄청  
바쁘네 개까지 기르니 더 바쁜 거예요. 아침에 밥을 짹 먹이고,  
산책을 나가야 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데리고 나갈 수 없어요.  
교대로 나가야 해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엄청나게  
좋아했단다. 특히 진돗개는 다른 개보다 깔끔하단다. 주인을  
좋아하고 무척이나 잘 따르기 때문에 키우는 매력이 코난다.  
교감하는 맛이 있단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7마리라니. 그의  
마음이 여느 어른들과 다르기 때문 아니겠나. 어린 시절 꿈이  
만화가였을까? 아니란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것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만화가가 꿈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그럼 어린 시절 꿈꾸던 그런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만화가가 되자 정도…….” 그러면서 다시 말을 잇는다. “실제로  
만화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만화에 소홀하고 있어요. 어릴 적  
꿈을 이루었다고 하긴 거리감이 있네요. 하지만 지금의 삶에  
딱히 불만은 없단다.

이런 그가 바이크에 진심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홀로 라이딩 하는 그의 모습과 홀로 들판을 질주하는  
진돗개 바람이가 오버랩 되는 것은 나만의 상상일까? 언제부터  
바이크를 탔는지가 궁금했다. “언제더라……. 글썄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이크를 타더라고요.” 바이크 타는 게 만화  
그리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단다. 라이딩에 취하다보니 만화  
그리는 일이 소홀해지더라. 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바이크 타는  
김종한으로 더 많이 기억한단다. “그래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만화 그리는 김종한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말하는 그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무뎠던 그의 표정이  
비로소 편다. 그를 바이크 타는 찐 만화가로 오랫동안  
기억하기로 한다.

만화가 김종한이 바이크에 입문한 것은 언제였을까?  
“화이팅 바람이가 출간 된 게 1995년입니다. 그 이전부터  
탔으니까 92년 아니면 93년일 겁니다.” 스포츠 바이크인 일제  
레플리카로 바이크 세계에 입문했단다. “충무로 바이크 샵에서  
샀습니다. 지금이야 할리데이비슨코리아, 혼다코리아,  
야마하코리아 등의 총판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충무로 샵에서 모든 기종을 다 취급하던  
때였는데, 거기서 할리데이비슨을 처음 봤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할리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도 할리의  
멋이라면 번쩍번쩍 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간 친구와 번갈아  
시승을 했다. 은빛 자태에 흘렀던 마음은 다시 말 발굽 같은  
엔진 소리에 요동쳤다. 스포츠 바이크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  
다른 세계였다. 어길 어쩐다! 사실 형편이 좋은 시절도 아니었다.  
어렵게 만화를 그려 겨우 스포츠 바이크 한 대를 타는데,  
할리라는 금단의 열매 맛을 보았으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들었고,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단다. 하지만 할리를 통해 충분히 위로받지  
않았을까. 30여 년 할리와 지내다 보니 지금은 웅장한 엔진  
사운드 보다 순정 머플러에서 나오는 안전한 소리가 더 좋단다.

할리의 매력이 궁금했다. “할리는 아주 천천히 달려도  
재미가 납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른 바이크를 타고  
최저 속도로 주행하면 무척 힘이 든단다. 뭔가 신경 쓰이고  
답답하단다. 그런데 할리는 그런 답답함 대신 안락함이  
느껴진단다. “스로틀을 열 때의 조작감, 바이크의 무게감, 안정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할리만의 중후한 맛”이란다. 그런데  
지금 타는 기종은 로우 라이더다. “로우 라이더는 빠른  
할리입니다. 같은 연식, 비슷한 라인업에서도 스로틀 밸브를  
열었을 때 가속이 가장 빠릅니다. 최고 속도 잘 나오고요. 로우  
라이더가 말 그대로 시트가 낮아 굉장히 낮게 깔리는 바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천천히 달려도 재미있는 게 할리의 매력이라고 했는데, 대척되나요?” 그러면서 로우 라이더로 천천히 달려도 당연히 재미있다고 덧붙인다.

데니스 호퍼 감독의 영화 이지 라이더에 대해 물었다. 오토바이 로드 무비의 전설이며 할리를 위한 영화로 불리는 이지 라이더. “재미있게 본 영화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인공이 죽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주인공이 총에 맞아 죽는 것 보다 총을 쏜 사람이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게 마음에 납니다. 그 시절에 미국 정서가 어땠는지 몰라도 바이크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마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바이크 문화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에게 영화나 만화 주인공 중 할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일까 물었다. “딱히 주인공이라기보다……. 바이크 페스티벌에 가면 각양각색의 라이더들이 모입니다. 라벨을 붙이고 요란한 가죽점퍼를 입거나 머리를 기른다거나 문신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마이를 걸치고 청바지를 차려입은 신사 같은 분들이요. 저 역시 그런 분들이 보기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애지중지하는 할리를 몰고 나온 분들을 보면 멋지죠. 할리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한 작가는 2022년도 할리 팬 아메리카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활동 소감을 물었다. 팬 아메리카를 타기 전 머릿속에 많은 것을 그렸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아주 익사이팅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였습니다. 팬 아메리카는 할리에서 처음 시도하는 기종이고 스타일도 기존 할리와 달라 불리한 면이 많았을 겁니다. 또 라이벌 제품도 굉장히 많고 다양해서 비교된 부분도 있고요. 팬 아메리카를 라이벌 제품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나 재미부분에서 꿀릴 게 전혀 없고 충분합니다.”

김종한 작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라이더들이 함께 달려보기를 희망하는 라이더 중 대표적인인물이다. 그와의 라이딩은 새로운 길에 대한 경험, 새로운 시선에의 감동이다. 국도는 물론 농로까지 흰하게 꿰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전국의 농로를 다 켜다는 것은 지나친 얘기입니다. 경기도 까지는 가능합니다. 비결이라, 사실 국도 같은 큰 길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농로에서 만나는 낯선 풍경은 감동을 줍니다. 아무래도 인공적인 것이 덜하고 논밭, 우거진 숲, 너른 들판 등

자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색적이거나 뜻하지 않은 장면을 만날 가능성도 많으니 재미의 요소가 많다는 것. 그러면서 혼자 라이딩 하기 좋은 길, 지기지우(知己之友) 두셋이 가기 좋은 길, 여럿이 무리지어 가기 좋은 길을 추천해주었다. “혼자 라이딩 하기 좋은 길은 우리나라 모든 길입니다. 어디 든 맛이 다르니 모든 길을 추천합니다. 친구와 가기 좋은 길은 그들의 기호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뭘 먹을 건지 뭘 볼 건지에 따라서. 저는 주로 지방도라든가 읍면 단위의 시골길을 추천합니다. 산수가 어우러진 풍광 좋은 곳이면 더욱 좋고요. 여러 명이라면 넓은 길로 가야합니다. 안전과 통솔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종한 작가는 고독한 러너이다. 혼자서 라이딩을 즐긴다. 남들이 가지 않는 시골길을 달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작곡을 합니다.” 의외라는 반응에 그가 웃는다. “제가 음악적 소양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크를 타면서 곧잘 흥얼흥얼댁니다. 거기에 멜로디를 얹고 변주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이걸 작곡이라고 농담 삼아 얘기한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음악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뭐 대단한 작곡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남들처럼 자신도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동행이 있으면 어디서 커피를 마실까 평범한 생각을 한단다. 마지막으로 라이더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천천히 달려도 바이크는 타는 재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속도의 질주, 과감하게 코너링도 즐거움이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본인의 기본적인 실력과 경력에 맞춰 안전하게 탔으면 합니다. 그래야 재미있는 바이크를 오래도록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말미에 급히 덧붙인다.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피해가는 게 최고의 실력입니다.”

남석기  
동화작가. 천재교육에서 학습교재, 교과서 개발.  
월간 지방자치 편집장 지낸. 호기심 가득한 동심의 시선으로 다수의 창작동화, 학습·교양 도서 발간. 왕성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왜 할리에 홀릭되는지 탐구' 중.

최지원  
스튜디오 씨를 운영하는 포토그래퍼.  
탁월한 색감. 피사체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뽑아내는 재주가 있는 포토그래퍼. <편집자 평>

혼자 라이딩 하기 좋은 길은 우리나라 모든 길입니다. 어디 든 맛이 다르니 모든 길을 추천합니다. 친구와 가기 좋은 길은 그들의 기호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뭘 먹을 건지 뭘 볼 건지에 따라서. 저는 주로 지방도라든가 읍면 단위의 시골길을 추천합니다. 산수가 어우러진 풍광 좋은 곳이면 더욱 좋고요. 여러 명이라면 넓은 길로 가야합니다. 안전과 통솔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정환입니다. 성남시 분당에서 부동산 관리업을 하며, 봉사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기증 강의와 할머니, 할아버지께 웰다잉(Well-Dying,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역발상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흐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온 할리데이비슨 프라모델을 조립했어요. 내 손으로 완성되어가는 할리데이비슨 모형을 보면서 '어른이 되면 이걸 꼭 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쁘게 살다보니 그 꿈을 잊고 살았죠. 그러던 13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텅빈 산 갈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컸죠. 허한 마음에 한참을 방황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미국 여행 중 들른 할리데이비슨 매장에서 지금 입고 있는 할리데이비슨 재킷을 샀어요. 그때부터 다시 꿈에 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부터 행복해져야 내 가족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글·사진. 양현웅

# 이정환

남자,  
동심을 말하다

IT'S TIME TO RIDE





IT'S TIME TO RIDE

취미로 프라모델, 피규어를 수집하고, 그 전리품들을 전시할 장식장을 만드는 그는 이번호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일 것 같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한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들도록 그의 어투를 그대로 옮겼다.



할리데이비슨, 목공, 봉사활동 등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지금은 하나하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를 따야 하잖아요. 집사람에게 조심스레 ‘2종 소형면허’이야기를 꺼냈더니, “왜 하필 그걸 따려고 하나?”며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 번에 합격 못 하면 포기해’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떨어지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한 번에 합격했어요. 아마도 하늘의 뜻이겠죠? (웃음)

그길로 용인 할리데이비슨에 달려가 울트라 리미티드를 계약했어요. 하지만 첫 시도는 아내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결국 취소해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할리가 자꾸만 생각나고, 너무 타고 싶더라고요. 스트리트 글라이드를 몰래 출고한 뒤 한 달 후에 아내에게 실토했어요. ‘안전하게 탈 테니까 딱 한 번만 봐 달라’고 졸랐죠.

그렇게 제 첫 바이크인 2015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를 갖게 됐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취미인 만큼, ‘가능한 가족과 함께 한다’는 저만의 원칙을 세웠어요. 두 아들과는 할리데이비슨 덕분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두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함께 다녀온 일본 투어(2018년과 2019년)에서는 제 뒷자리와 지인의 뒷자리에 아이들을 나눠 태우고 일본 남부를 크게 돌고 왔어요. 라이딩하며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 이렇게 만들어진 추억이 삶의 좋은 비료가 되고 있습니다. 펜데믹이 찾아오고 그 사이 아들이 다 커버렸어요. 첫째 아이는 이제 뒤가 아니라 직접 몰고 싶다고 해요. 뒤에 태우기에는 너무 커져 버리기도 했고요. 첫째가 성인이 되면 자동차 면허를 취득시키고, 도로 감각을 먼저 익히도록 한 뒤 바이크 타는 법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 땐 지금의 스트리트 글라이드를 물려줄 생각이예요.

그리고 보면 인생이랑 똑같은 게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딴짓하면 넘어지게 되고, 인생도 똑같거든요. 책임도 오롯이 다 내 몫이고요.

제 취미는 장난감 모으기입니다. 남자는 철이 안 든다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모으다가 대학생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장난감들이 그 시절 제가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저의

연대기’ 같습니다. 아톰과 마징가도, 요즘 모으고 있는 할리데이비슨 모형까지도요.

중년이 되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어떻게 놀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 취미 생활은 제게 큰 힐링이에요. 수집품 중에는 애들에게 물려줄 장난감도 있어요.

목공을 배운 것도 다 이 장난감 피규어를 전시할 장식장을 만드려고 한거예요. 피규어 하나하나의 개성에 딱 맞춘, 그러니까 장난감 각각의 집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번 작품입니다. 내부에 조명도 설치해 각 작품에 어울리는 빛과 반사까지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동심도 지켜주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가느라 시간이 뿔뿔하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교외의 주택으로 이사 왔고요, 학원 보낼 돈으로 여행 한 번 더 가고, 열심히 놀게 해주었죠. 할리데이비슨 행사에도 아이들과 함께 거의 다 참가했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참 각박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놀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세상에서 아빠와의 추억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꿈은 계속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나중에 집을 새로 지어 목공방을 만들고, 라이더들이 오다가다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도 싶어요. 아는 지인들이 와서 목공도 하고, 라이딩을 떠나기 전에 잠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는 이렇게 계속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현용  
특유의 색감으로 사진을 만들어내는 '월간 모터바이크' 편집장. <편집자 평>



남자에게 나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없다. 지천명의 나이도 훌쩍 넘긴 그의 얼굴에서 여전히 소년의 미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동심이 가진 힘이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인 이정환 라이더는 할리데이비슨 용인점에서도 '늘 아들과 함께 하는 라이더'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아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 그들은 왜 할리데이비슨을 좋아하는가?

글. 남석기



다시 봄이다. 봄은 따뜻한 공기마냥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한다. 봄비, 봄바람, 봄나들이, 봄노래.... 봄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설렘으로 채운다. 설렘은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 추억에서 비롯된다. 동심의 추억이라면 설렘의 강도는 배가(倍加) 된다. 봄은 봄의 출생이고 여름은 봄의 성장이다. 가을은 봄의 성숙이며 겨울은 봄의 죽음이다. 봄의 느낌은 자연이나 우리네 인생이나 다를 바 없다. 봄은 곧 우리의 유년이요, 가볍고 따뜻한 봄기운은 우리의 동심이다. 이익에 눈 밝은 기성세대는 파괴될지언정 동심의 세계는 깨지지 않는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말이다. 동심은 그 어떤 재력이나 권력에도 흔들림이 없다, 잊속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 때문이다. 그러기에 아이들은 싸우다가도 금세 화해하고 친해진다. 아이처럼, 동심을 간직한 어른이 많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깨끗할 것이다.

방송인이며 소통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으로 동심을 손꼽았다. 왜냐, 동심을 잃으면 인상이 나빠진단다. 교감 능력이 사라지고 소통이 안 된단다. 유머 감각조차 잃으니 즐겁게 살려면 동심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수긍 가는 말이다. 일찍이 방정환 선생도 ‘우리 사는 세상에서 아동 시대의 마음처럼(동심) 자유로 날개를 펴는 것도 없고 순결한 것도 없다. 우리는 항상(恒常) 시시(時時) 아동의 세계로 돌아가 마음의 순결을 빌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동심을 간직한 어린이의 특성을 알고 어린이처럼 산다면 어른도 행복하다. 어린이는 ①감정에 솔직하다. 잘 웃고 잘 운다. ②잊속에 따라 상대를 재단하지 않으며 경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과도 금세 친구가 된다. 다투어도 조건 없이 용서한다. ③감정이 풍부하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④호기심이 강하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⑤놀이에 몰입하여 즐길 줄 안다. ①,②,③의 특징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④,⑤의 특징은 우리 어른들도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놀이는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재미를 얻기 위해 활동한다. 노동하면서도 그 안에서 유희의 즐거움을 이끌어 내는 존재가 인간이다. 호모 루덴스(Homo Ludens)는 노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호모 루덴스는 여가를 즐기며 레저의 삶을 추구한다. 호모 루덴스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도 유년기의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키덜트족이라 불리는 어른들이다. 그들은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피규어를 모은다. 종이접기를 하고 컬러 크레이를 주무른다. 2015년의 일이다.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이 출연했다. 그의 출연에 훌쩍 커 성인이 된 20~30대의 코딱지들은 열광했다. 그들이 ‘어린이 놀이’에 지나지 않는 종이접기에 그토록 진실일 줄 누가 알았으랴. 동심의 소환이었다. 동심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잊힌 것이었다.

동심의 또 다른 특성은 역동성이다.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 분주히 움직이며 뛰고 달린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달린다. 체코의 육상 영웅 에밀 자토펙의 말이 아니더라도 달리기는 인간 본성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냥감을 쫓아 하루 40km 이상을 달렸다. 원시 인류에게 달리기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기능이며 생존 본능이었다. 인간은 달리도록 진화되었다. 인간 줄기세포에는 본능적으로 달리려는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한다. 인간은 달리면서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다. 오래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을 느낀다. 혈중 엔도르핀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런 상태를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호모 러너스(Homo Runners) 달리도록 진화한 인간, 달리기 위해 태어난 인간을 규정하는 말이다. 바이크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러너스의 본성을 동시에 자극한다. 그 중 할리데이비슨의 입지는 특별하다. 할리데이비슨은 더 이상 바이크가 아니다.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선 문화의 상징이자 철학이다. 자유의 코드이자 새로움에 대한 동심 어린 설렘이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몸체와 V형 트윈 엔진의 진동 그리고 말발굽 같은 엔진 소리를 들어보라. 누군들 가슴이 뛰지 않겠나. 트윈 엔진과의 동조는 동심의 발로이다. 아이처럼, 그들이 할리데이비슨에 열광하는 이유이다.



모터사이클과 스के이트보드는 닮은 점이 많다. 다른 탈 것에 비해 넘어질 확률이 높고 신체가 외부로 드러나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자칫 위험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인지 이 두 탈 것은 ‘철들지 않은 어른들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그렇지만 라이더에게는 철들 수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프로 스के이트보더이자 스포스터 오너인 정연수(34) 라이더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알게 됐다. ‘라이더가 철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 라이더가 철들 수 없는 이유

글. 김남구 — 사진. 김성원



연수 씨를 만난 곳은 평택과 천안 사이에 있는 LPG 충전소. 10년 전부터 이곳을 운영한 연수 씨는 주유소 한편에 보드 연습장 겸 개러지를 마련해 뒀다.



‘간단한 정비나 커스텀은 여기서 해결하고 있어요. 스के이트보드는 데크, 트럭\*, 바퀴 등의 세팅을 바꾸면 특성이 달라져요. 트럭의 세팅을 변경하면 충격 흡수력이 조절되고, 바퀴마다 트랙션도 제각각이에요. 데크 위 사포 강도까지 조절하면서 나만의 세팅을 맞춰 나가요. 할리데이비슨도 마찬가지예요. 프런트 포크는 늘리고 연료 탱크는 줄이고, 핸들 바는 좁혀서 차퍼 스타일로 커스텀 했어요. 내가 원하는, 남들과 겹치지 않는, 나만의 것으로 커스텀 할 수 있다는 점이 할리데이비슨과 보드의 매력이에요.’

\*트럭: 보드의 데크와 바퀴를 연결해주는 쇠못치



나만의 것으로 커스텀할 수 있는 점이 할리데이비슨과 보드의 공통적 매력





IT'S TIME TO RIDE



트릭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그거면 됩니다

'보드를 타다 보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져요. 지방에 내려가 그 지역 라이더들과 함께 보드를 타며 소통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가게에 발이 묶이면서 교류에 대한 갈증, 자유에 대한 갈증이 커졌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모터사이클, 그중에서도 할리데이비슨이었어요. 보드 영상을 스터디 하다 보면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이 등장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창 시절부터 친숙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할리데이비슨과 보드는 자유로운 분위기, 역동적인 이미지, 미국 본토의 주류 문화라는 점 등 닮은 점이 많아요. 특히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 좋았어요.



라이더는 철들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모터사이클과 보드의 장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인 한편, 역설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타는 순간만큼은 주변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타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충청도 부근은 노을이 예쁘게 지는 곳이 많아요. 노을을 바라보며 달리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보드도 그래요. 트릭(기술)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그리고 이를 성취했을 때의 쾌감.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의 솔직 담백한 답변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 밝혔듯 모터사이클과 보드는 '위험하다'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을 완벽하게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터. 이에 대한 정연수 라이더의 반론은 정곡을 찌른다. '위험은 확실적인 부분이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고는 보통 욕심을 내고 무리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그 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면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즐길 건 즐기 되 안전하게 즐긴다면 문제 될 건 없다고 봐요. 절대적인 안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라이더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불편한 진실. 위험한 비주류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든 모터사이클과 보드. 이를 취미로 삼는 이에 대한 차디찬 시선, 철이 덜 들었다는 조소 섞인 비아냥. 이에 대해 연수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의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뒤로 흘려요. 배울 부분이 있으면 배우겠지만 내게 필요치 않은 이야기라면 굳이 귀담아 들 필요가 있나요?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철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에서 저는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려 노력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위험하듯, 생각도 깊어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적정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답변을 듣고 무릎을 '탁' 쳤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에, 생각을 줄일 수 있기에, 모터사이클과 보드를 탄다는 그의 행위는 그가 가진 삶의 신념과도 맞닿아 있었다. 과연 그렇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타인, 너무 많은 의견, 너무 많은 주장.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이유도, 의무도 없다. '라이더는 철들지 않는다. 아니 라이더는 철들 수 없다.'

#### 김남구

바이커즈랩의 기자. 솔직한 의견과 명쾌한 글을 쓰는 썬 모터사이클 애호가.  
본격적인 덕업일치에 성공한 행운아. <편집자 평>

#### 김성원

움직이는 피사체를 찰나의 순간에 가둬버리는 국내 No. 1 모터사이클 포토그래퍼.  
패닝 샷의 신. <편집자 평>



할리데이비슨은 사랑을 싣고. 여기 할리데이비슨이라는  
공통점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이 있다. 수조 속의  
세상을 창조하는 남자가 물고기를 키우는 여자를 만났다.  
조화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유주희 — 사진. 류효림

자신만의 취향과 열정을 따라 달리는 부부  
문목무, 백윤지 라이더



Talk It Out :

IV

# 그의 물속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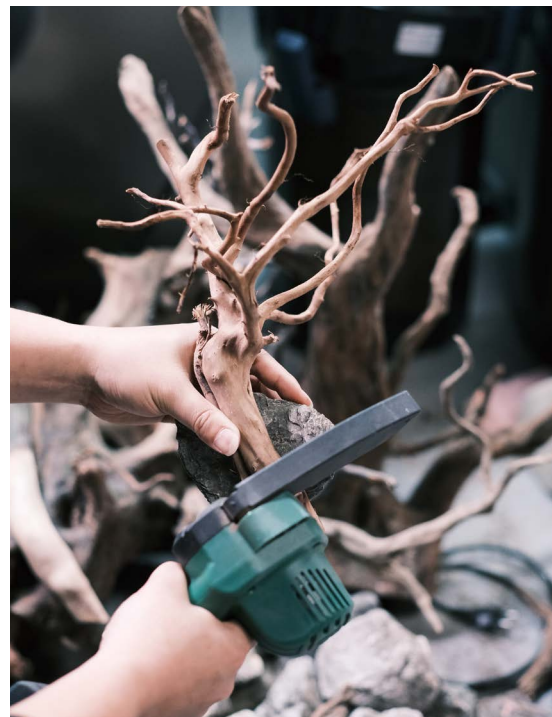
수경작가인 문목무 씨는 사진을 편집하는 취미도 있다.  
여기 실린 사진들은 모두 그가 마무리 해준 것이다.



이토록 정적(靜的)인 아쿠아스케이프와 지극히 동적인 모터사이클 라이딩이란  
취미는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걸까?



백윤지(좌) 씨와 문목무 씨.  
둘 모두 인스타그램에 많은 바이크 사진들을 게시하고 있는 라이더다.



백윤지씨는 물고기를 키우다 문 작가와 만나게 됐다.  
문 작가가 운영하는 아쿠아스케이프 블로그에 질문을 남긴  
것이 계기였다.





진녹색 수초가 가득한 수조에서 이국적인 빛의 물고기들이 반짝였다. 부산하면서도 매끈한 움직임이 고요하게만 느껴졌다. 아쿠아스케이퍼 문목무가 동료들과 공유하는 작업실 풍경이다. 아쿠아스케이프는 말 그대로 물속의 풍경을 의미한다. 나무와 돌, 수초를 이용해 작가의 심상을 구현한다. 작가의 손길에 따라 수조 속에 절벽이 생겨나기도, 열대우림이 들어서기도 한다.

문 작가는 원래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웹디자이너 출신이다. 취미로 아쿠아스케이프를 시작해 이제는 전업 아쿠아스케이퍼의 길을 걷게 됐다. 아쿠아스케이퍼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기도, 회사에 소속되기도 한다. 문 작가의 경우 '상 아쿠아' 소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 작가가 만든 작품들은 기업 로비나 상업시설 등에 놓이거나 드물게는 아쿠아스케이프 애호가 가정으로 보내지기도 한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나라마다 특색이 있다는 문 작가의 설명이 흥미로웠다. “열대우림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아쿠아스케이퍼들은 정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은 자국의 정원 풍경을 모티브로 한 레이아웃이 많죠.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산과 계곡을 자주 담고요.”

수조 속의 고요함을 지켜보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이토록 정적(靜的)인 아쿠아스케이프와 지극히 동적인 모터사이클 라이딩이란 취미는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걸까? 예상과 달리 문 작가는 “할리데이비슨은 매우 정적인 취미”라고 단언했다. “몸을 많이 쓰는 스포츠 바이크와 달리 스로틀을 잡고 직진하는, 동적인 듯하지만 동시에 정적인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답이었다. 그의 다른 취미들도 낚시, 바둑처럼 몹시 정적이다.

배우자인 백윤지씨는 물고기를 키우다 문 작가와 만나게 됐다. 문 작가가 운영하는 아쿠아스케이프 블로그에 질문을 남긴 것이 계기였다. 아쿠아스케이퍼라는 장르와 직업에 매력을 느낀 백씨는 자연스럽게 문 작가에게도 호감을 갖게 됐다. 부산과 경기도 일산을 오가며 만나던 이들은 이제 부부다.

둘은 지난 2018년 동시에 모터사이클에 입문했다. 각자 모터사이클에 대한 로망을 품고 살아오던 차에 우연히 마주친 할리데이비슨 광고가 불을 붙였다. 그다음 날로 아이언883 신차 두 대를 계약했다. 2중 소형 면허는 그 다음에야 취득했다.

다른 모터사이클 브랜드는 염두조차 두지 않았다. 문 작가는 “이때까지 이어진 할리데이비슨의 역사와 헤리티지, 고동감과 감성 때문”이라면서 “다른 브랜드의 바이크들도 타봤지만 할리는 바이크라는 장르 안에서도 특별하다”고 말했다. 백씨도 “우리는 할리 빠돌이들”이라며 웃었다. 아쿠아스케이프도,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도, 갖고 싶으면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부는 매우 닮아 보였다.

장거리 투어, 특히 캠핑을 시작하고부터는 둘이 각각 팬 아메리카로 기변했다. 백씨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반했다. 장거리 투어도 편하다”고 극찬했다. “잔고장이 조금 있지만 남양주 지점에서 워낙 훌륭한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둘은 “곧 죽어도 할리, 곧 죽어도 신차”라는 신조다. “할리를 탄다”고 하면 돌아오는 선망 어린 반응(“오~ 할리를 탄다고요?”)도 부부의 자부심에 일조하고 있다.

백씨는 과거에도 등산, 테니스, 암벽클라이밍 같은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문 작가를 만나면서 정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것도 잠시, 함께 바이크에 입문하면서 거의 매주 말 투어를 즐기게 됐다. 종종 새벽에 즉흥적으로 투어를 떠나기도 한다. 부부는 “우리가 철이 없다”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하고 싶은 일을 참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다. 자신만의 취향과 열정을 따라 달리는 부부의 삶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졌다.

**유주희**  
서울경제신문 기자. 2014년 라이더가 된 후 현재까지 라이더로 남아 있다.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을 위한 뉴스레터 〈지구용〉을 만들고 있다. 흐르듯 읽게 되는 글을 쓰는 writer. 〈편집자 평〉

**류효림**  
공간의 질감, 일상 속에 놓여진 패턴들을 잘 잡아내는 연합뉴스의 사진기자이자 캠핑 광인. 〈편집자 평〉





보석을 매만지는 가늘고 섬세한 손놀림. 눈부시게 환한  
주얼리 매장 안에 있던 임민정 씨와 할리데이비슨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결코 유추할 수 없는 그녀의 모터사이클 라이프에 대해  
‘잇츠 타임 투 라이드’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글. 김중훈 — 사진. 이진화

청담동에서 주얼리 샵을 운영중인  
임민정 라이더

#달뜬  
설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많은 실버 주얼리가 눈을 가득 채웠다. 그 사이에서 임민정 라이더가 반짝이는 은빛 미소로 맞이했다. 13년 전, 그녀는 오랜 꿈에 도전했다. ‘갖고 싶은 장신구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보자’라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고, 직업적으로도 ‘패션’ 쪽에 종사해왔기에 ‘주얼리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데에 두려움은 없었다. 일찍부터 보석 관련 일을 하는 남편의 존재도 든든했다.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의 표정은 언제나 그렇다. 약간 달뜬 그 표정. 바로 알아차렸다.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꽤 화기애애할 거라는 점 또한. 모터사이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 모터사이클에 관해 얘기할 때 어떤 분위기인지, 아는 사람은 안다. 지금 당장 타고 싶어 들쭉거리는 기분이 느껴지는 설렘. 게다가 그 모터사이클이 할리데이비슨이라면 더욱 진할 테니까. 시작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예전부터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싶어 했다. 마음속에 맴돌던 바람을 임민정 라이더에게 함께 타보자는 말로 전했다. “남편이 사고 싶은 바이크 두 대를 사서 왔어요. 어차피 같이 타고, 서로 돌려도 탈 생각이었죠. 초보가 탈 수 있는 너무 과하지 않는, 그러면서 적당히 오래 탈 수 있는 모델을 골랐죠. 남편은 팻보이, 전 소프테일 슬림.” 모터사이클은 골랐지만 둘 다 갓 2종 소형 면허만 딴 상태였다. 게다가 첫 모터사이클이 덩치 크고 무거운 할리데이비슨 아닌가. 고생길이 열렸다. “내가 과연 이걸 탈 수 있을까 싶었어요. 무겁고 핸들도 안 당겨지더라고요. 그런데 할리데이비슨 매장 매니저가 안심시켜 줬어요. 자기가 시동 켜는 것부터 다 알려줄 거라고. 정말 다 연수를 시켜주셨어요.” 임민정 라이더는 그때 이래서 신차를 사는구나, 하고 몸으로 깨달았다.

하필 겨울이었다. 초보라 적응하기도 힘든데 한강공원에서 칼바람 맞으며 연수를 받았다. 고생이 클수록 그 열매는 달콤한 법. 4개월 후, 도로에서 드디어 할리데이비슨을 타는 즐거움에 흠뻑 빠졌다. 라이딩의 즐거움을 말할 때가 되자 임민정 라이더는 팔을 쭉 뻗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만은 소프테일 슬림 위에 있는 것처럼. “스로틀을 감아 짹 달리면서 두두두두, 하는 엔진 토크를 느낄 때 좋아요. 그 느낌을 즐기려고 자꾸 스로틀을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달리죠. 천천히 달리면서 차선 안에서 S자를 그리며 리듬감을 느낄 때도 좋아요. 그래서 자꾸 한적한 시외로 나가서 달리려고 하죠.” 저 멀리 한적한 도로를 바라보듯 임민정 라이더의 입가에 미소가 피었다.

임민정 라이더의 라이딩 스타일은 명확하다. 한적한 도로에서 엔진의 토크를, 묵직한 차체의 리듬을 즐기는 것뿐. 보통 모터사이클에 재미를 붙이면 다양한 모터사이클에 관심이 가게 마련이다. 임민정 라이더는 오직 할리데이비슨이 줄 수 있는 재미면 족했다. 취향이 맞아떨어졌다. 거대한 배기량에서 오는 풍성한 토크와 묵직한 차체가 주는 리듬감은 할리데이비슨의 전매특허 아닌가. 다른 장르의 모터사이클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요. 딱 일요일만 탈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할리만 타죠. 일주일 동안 그 하루만 기다려요.”

그렇게 3년 동안 다니며 라이딩 이외의 즐거움도 생겼다. 할리데이비슨을 타지 않았다면 굳이 가지 않았을 장소와 길. 전에는 못 느끼던 감흥을 만끽했다. “한 목요일쯤 되면 우리 일요일에 어디 갈까?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안 가본 데 갈 생각에 너무 설레는 거죠. 새로운 장소나 길에서 냄새, 바람 이런 걸 느끼면 막 설레는 미묘한 감정이 생기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감정을 그냥 즐기는 것도 좋지만 기록하는 재미도 찾았다. 유튜브 채널에 담백하게 여정을 올리는 재미. 채널명은 ‘숨어지’다. 영상을 올린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어느새 8천 명이 넘었다. 임민정 라이더는 이 모든 게 신선하고 재밌다. “그냥 할리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올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안 가본 곳을 다니며, 유튜브라는 새로운 영역도 경험한다. 모두 할리데이비슨을 타면서 생겨난 일이다.

“그냥 안 망가지는 예쁜 할리를 타고 할머니가 되어도 여기저기 막 다니면 좋겠어요.” 할리데이비슨을 타며 이루고픈 로망을 묻자 임민정 라이더는 고민하지 않고 답했다. 지금 타면서 느끼는 감흥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다는 만족감. 그러면서 그 만족감을 오랫동안 느끼고픈 마음. 그럴 수 있도록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소망이라면 소망이랄까. 무거운 클러치를 잘 다루도록 손 완력기를 따로 사서 운동도 해온 만큼 진심이다. 물론 이번 여름휴가에 전국 투어를 계획하는 소소한 즐거움은 잊지 않았다. 언젠가는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하와이에서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싶다는 바람 또한.

김종훈 정글하게 텍스트를 정리해주는 남성이 에디터 출신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편집자 펴〉 이진화 멈추지 않는 셔터. 복원이 만족할 때까지 촬영을 누비는 스냅 사진의 전문가 〈편집자 펴〉







: 할리를 막상 사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지. 크잡아 일단.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웬지 동양인이 타기에는 힘들 것 같고, 말이야. 오토바이라니까 대들 주변에서 사고당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늘어놓더라고. 근데, 내가 할리를 사고 나니깐 좋았어. 모든 면이 다. 삶의 원동력이 생긴 거야. '진작 살걸'하고 후회했지.

: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는 곳도, 직업도, 성격도 다 다른 동료들인데 '할리를 탄다'는 공통점으로 묶인 친구들이야. 언제고 함께 투어를 다닐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이지.

: 어릴 때 할리를 본 것이 생각나. 학창 시절 경찰 오토바이가 '하레이'였어. 그때도 그 위용과 배기음은 엄청났지. 그때 각인됐었던 거야. 그 소리가. 가슴에.

動心

同心

童心

양평 만남의 광장(이하 양만장)에서 만난 노신사들. 삶의 황혼기를 시작한 이들의 얼굴에 소년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던 이유라면, 장난기 가득한 미소 때문일 것이다. 그들 중 강력한 활력이 뿜어져 나오던 신사, 김홍선 씨와 몇 마디를 나눴었다.

: 2000년도 초반에 할리데이비슨 창립 100주년 기념 모델인 '스프링거'(SPRINGER, 스폰링어)를 갖게 됐을 때는 말이지,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 전자 장비도 거의 없었지만, 그 단순하고 투박한 모습이 좋았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더라고.

: 작년에만 2만 킬로를 탔어. 올해에도 그렇게 타고 싶고, 백두대간부터 모든 곳을 다녀올 거야. 매년 다니지만, 매년 느낌이 달라. 혹시나 할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마디 전해주고 싶어. '고민될 때가 지를 때야. 육체는 언젠가 노쇠하고 할리를 탈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하하



할리데이비슨, 작품이 되다

Op.4

# TWINKLE FAT BOY

하남점 부품 및 액세서리(P&A) 포장민 대리

HASTA LA VISTA, BABY

글 · 사진, 모토이슈

클래식 음악 작품의 넘버링을 뜻하는 Op. 우리는 오늘부터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을 도화지 삼아 파츠와 액세서리로 만든 커스텀 바이크를 Op.바이크로 칭하기로 했다. 이번에 우리가 주목한 Op.바이크는 크롬 파츠로 블링블링함을 더한 상남자의 모터사이클 펫 보이였다.





하남점에서 OP 촬영을 하던 도중 이번 OP.4가 판매됐다. 팻 보이를 구매한 고객도 흔쾌히 촬영에 합류했다.

팻 보이는 인기가 많다. 말머리 모양 나셀 헤드라이트 커버와 원판형 휠, 두툼한 리어 타이어로 몸집이 크고 단단해 보인다. 남성적이고 박력 있는 모습. '상남자의 모터사이클'이라는 수식어가 진부해 보이지 않는, 남자들의 로망이다.

팻 보이의 인기와 이미지는 터미네이터와 떼어놓을 수 없다. T-800(아놀드 슈와츠제네거)이 팻 보이를 타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팻 보이에 앉아 한 손으로 소드 오프 샷 것을 쓰는 장면은 남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이번 Op.바이크를 담당하 하남점 표장민 대리도 터미네이터에 등장했던 이야기로 팻보이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표장민 대리는 올해로 7년째 할리데이비슨 부품 및 액세서리 팀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전역 이후, 바이크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그는 아이언 883, 다이나 스트리트밥을 거쳐서 지금은 로드 글라이드를 타고 있다. 언젠가는 할리데이비슨을 카테고리 별로 한 대씩 갖추는 것이 꿈이라고 하며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고객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할리데이비슨 마니아이고 7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이 더해졌으니 제품을 추천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강하게 추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럴 때 표장민 대리는 “내 의도를 강요하지 않고, 고객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자”라고 다짐한다. 그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고객이 생각하는 커스텀에 어울리는 제품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 Op.바이크를 꾸미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체적인 조화였다고 한다. “커스텀 취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베이스 모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Op 바이크의 베이스 모델인 팻 보이는 21년식부터 크롬 파츠 사용이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새틴 크롬이라고 해서 조금 광택이 없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롬 파츠가 강조된 신형 팻 보이에 크롬 파츠를 더해서 화려하게 꾸며보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라이더가 앉았을 때 크롬 파츠가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라이딩할 때 화려한 크롬 파츠가 슬쩍슬쩍 보일 때마다 라이더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말이죠”

발판, 그립류를 엠파이어 컬렉션 크롬 제품으로 드레스업하였고, 스위치 문치, 마스터 실린더 스위치 키 캡, 프런트 포크, 엔진 가드, 프런트 액슬 캡 등이 모두 다 크롬으로 교체됐다. 매립형 주유구, 코일 커버, 오일 쿨러 커버도 크롬으로 장착되었다.

시각적인 멋뿐 아니라, 라이딩 편의성을 위해 엔진 가드와 힐 토 시프터를 장착했고 크루즈 컨트롤도 더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치 순정처럼 자연스럽게 보였던 Op.바이크의 이곳저곳에서 크롬 액세서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나 헤드라이트부터 프런트 포크까지 크롬으로 이어지는, 일체화된 모습이 멋스럽다. 크롬 포크는 드레스업 효과가 확실하고 관리도 쉬워서 표장민 대리가 고객에게 항상 추천하는 파츠라고 한다.

‘크롬 파츠는 클래식한 맛이 있죠. 크롬이야말로 아메리칸 크루저를 대표하는 멋 아닌가요?’ 그가 말을 이었다. ‘반짝반짝 팻보이’에게 결국 이번 액세서리 바이크의 메인 테마예요. 크롬 파츠에 대한 예찬을 듣고 Op.바이크를 다시 한번 봤다. 과연 그렇다. 반짝이는 크롬, 시선을 끄는 화려함 그리고 팻 보이의 볼드함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이라 느껴졌다.

모토이슈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의 뉴미디어. 저 너머의 문을 연 Next Level 미디어. <편집자 평>.





오늘도 내일도 '할리'하며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할리한 흔적들을 남겨보세요.

#할리했어오늘도



인생 2막,  
할리와 함께 제주에서

@wheels\_jeu  
박기태

#다이나슈퍼글라이드12년식  
#카페 wheels 운영 중

**나에게 있어 할리란?**  
인생 2막의 시작점입니다. 8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할리데이비슨 바이크에 입문하게 되었고, 제주도에 바이크 카페(Wheels)를 오픈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을 타는 박기태 씨에게 주변에선 어떤 반응인가요?**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르게 할리데이비슨을 즐기는 젊은 라이더들이 많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도 할리데이비슨을 즐길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진을 소개해주세요.**  
할리데이비슨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즐기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미국 같은 분위기의 배경에서 촬영했습니다.



GUILTY PLEASURE

@29.x\_x  
김도연

#소프테일슬림 #주부

**'라이더는 철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어릴 적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놀기 위해 사람들과 친해졌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된 지금 저는 할리라는 바이크 놀이를 위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더 많은 할리 기종을 보기 위해서, 함께 수다를 떨면서 웃고 떠들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제 모습과 큰 차이 없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눈썰매를 접했을 때의 짜릿한 느낌처럼, 포티에잇으로 바린이 과정을 거쳐 지금의 소프테일 슬림까지. 오로지 할리만 모여있는, 할리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 프리그라운드(FreeGround)에서 열심히 '할리 뽕'을 맞보고 있습니다.

**할리하는 김도연씨에게 주변에선 어떤 반응인가요?**  
아이 돌 키우는 엄마가 할리를 탄다고? (친구를 반응) & 몸도 빠쩍 말라서 탈수는 있는데?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 엄마라고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게 왜? 타면서 내가 재밌고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 '나도 멋있게 탈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리에 입문했고 지금의 저는 너무 멋진 여라(여성라이더)입니다. ㅎㅎ 다른 기종의 바이크보다 '역시 할리가 잘 어울리신다'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나에게 있어 할리란?**  
육아에 찌든 내게 주는 즐거움



할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할리했어오늘도'란 해시태그로 올려주세요. T2R 편집부가 선정한 라이더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1903

120

2023

## History of Harley-Davidson® : The Beginning

글. 나경남 — 그림. 김나영

할리데이비슨의 120년 역사는 쉽게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항상 탄탄대로만을 걸어왔던 것도 아니다. 부흥과 좌절, 위기와 혁신이 끊이지 않은 덕분에 현재에 이른다. 120주년을 맞이한 지금은 그들의 역사 속 어떤 굴곡을 넘어가고 있을까. 120주년의 역사를 총 4회로 나누어 들여다보면서 현재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1부, 그들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 보자.

흔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만, 할리데이비슨에게 이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모르긴 몰라도 서로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였으며 그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초기 창업 멤버인 윌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은 상대적으로 뒤에 합류한 데이비슨 형제들에게 사장과 부사장직을 양보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 Walter Davidson

윌터 데이비슨은 윌리엄 할리나 아서 데이비슨보다 나이가 약간 더 많았다. 독학으로 전기 기술을 배웠으며 철도 회사 등에서 기계 공작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동생인 아서 데이비슨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할리데이비슨에 합류하고, 1907년 공식적인 할리데이비슨의 설립 이후 초대 사장 겸 총괄 매니저로 지명되어 근무했다.

### 1881-1950 Arthur Davidson Senior

아서 데이비슨은 특히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전체 영업 관리와 사무의 책임자였다. 극히 초기의 할리데이비슨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업 능력 덕분이다. 그는 회사의 설립 이후, 1908년 연말까지 약 200개 이상의 딜러를 미국 내에서 확보했으며 1912년에는 저 멀리 일본에 자사의 모터사이클을 수출하고 첫 해외 딜러를 확보하기도 했다.

### William Davidson

데이비슨 삼 형제를 가운데 맏형인 윌리엄 데이비슨은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그 스스로가 이미 숙련된 기계공이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들을 선택하는 등 일련의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1880-1943 William Sylvester Harley

윌리엄 할리는 15살 때부터 자전거 공장에서 쌓아왔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창업과 거의 동시에 위스콘신 공과 대학에 등록해 1907년에는 이미 졸업을 마쳤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로서 회사에서는 수석 엔지니어이자 재무 담당자 역할을 맡았다.



1903

120

2023

## GENESIS

창세기 1장 1절처럼, 할리데이비슨의 태초엔 그들의 창업주 윌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이 그들의 첫 번째 모터사이클을 만들어냈다. 1903년의 일이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그들의 첫 모터사이클 '시리얼 넘버 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윌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은 자전거에 얹을 엔진의 설계를 이미 1901년에 완성했고, 첫 모델에 앞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할리데이비슨의 브랜드명은 이 창업주들의 성을 딴 것이며, 윌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 말고도 창업주를 꿈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다. 아서 데이비슨보다 다섯 살이 더 많은 월터 데이비슨이다. 그는 실제 제작 능력을 갖춘 핵심 인물이었으며, 할리데이비슨의 첫 번째 생산 모델의 제작 또한 4명 남짓한 그들의 유명한 헛간에서 월터 데이비슨의 손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작은 공간에서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이들의 성공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할리데이비슨 모터 컴퍼니란 이름으로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했던 1907년에는 이미 작은 헛간에서 약 67명 수준의 첫 공장을 완성한 상태였고, 이 공장에서는 연간 약 50대의 모터사이클을 생산했다. 최초의 창업 멤버는 할리와 데이비슨이지만, 이후 합류한 두 명의 데이비슨 형제를 포함한 총 4명의 창업주는 저마다의 개성과 성향으로 각각의 직책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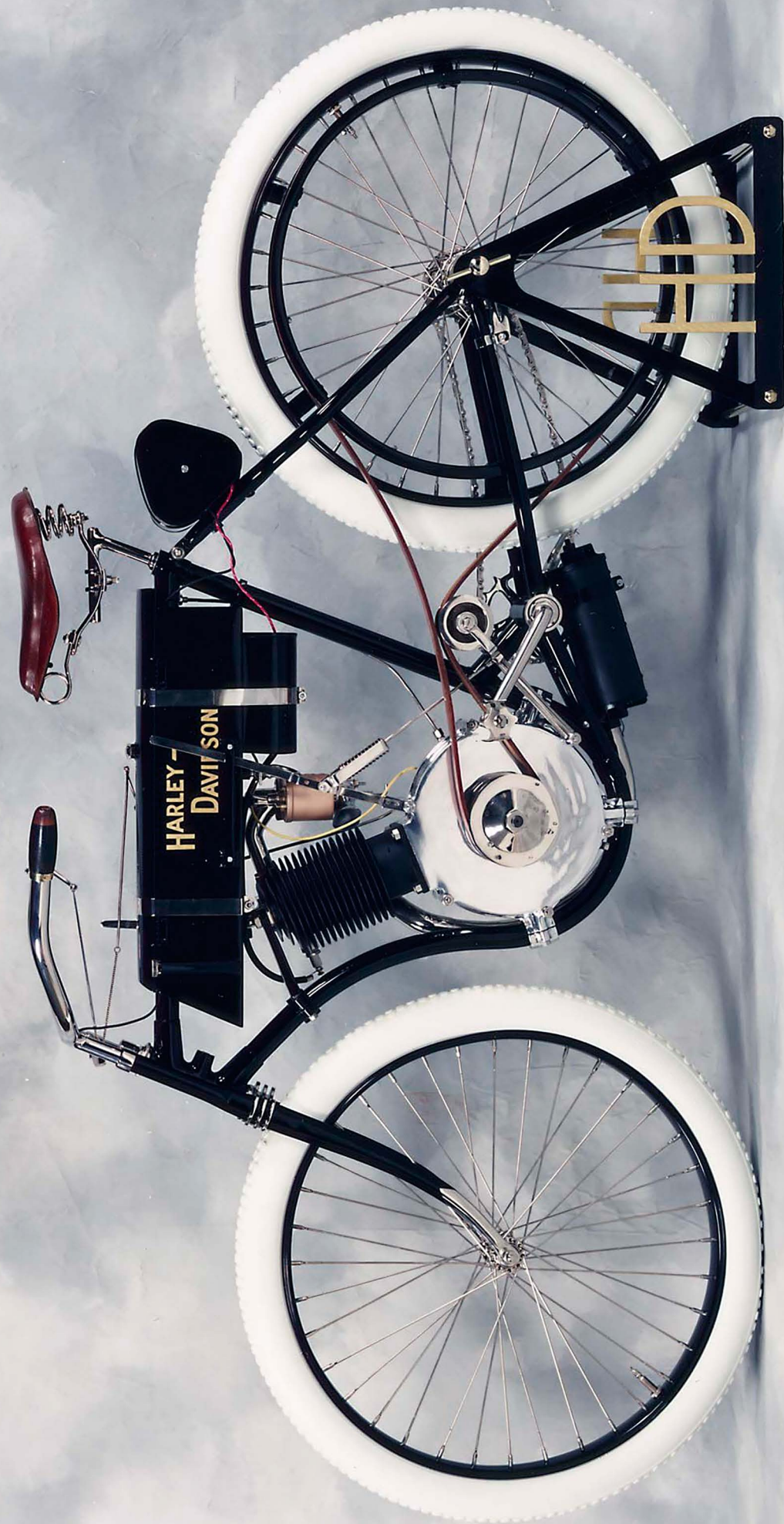


할리데이비슨을 창조한 창업자들

서로의 장점과 능력을 알고 그것을 적절히 배분하며 상호 존중하지 않았다면 서로 직책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랬다면 이들이 앞으로 닥칠 위기들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경남 월간 더 모토의 기자, '아메리칸 크루저'라는 장르에 경도된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팟캐스트의 모토이슈에 게스트로 참여 중. <편집자 평>  
김나영 새어 나오는 활력이 감춰지지 않는 사람. 펜 끝이 춤을 추 나오는 이미지들이 리드미컬하다. 그녀가 공연하는 밸리댄스처럼, 수원에서 미술을 일러고자 망망하고 있는 흥대 출신 화가. by <편집자 평>

그들의 첫 모터사이클 시리얼 넘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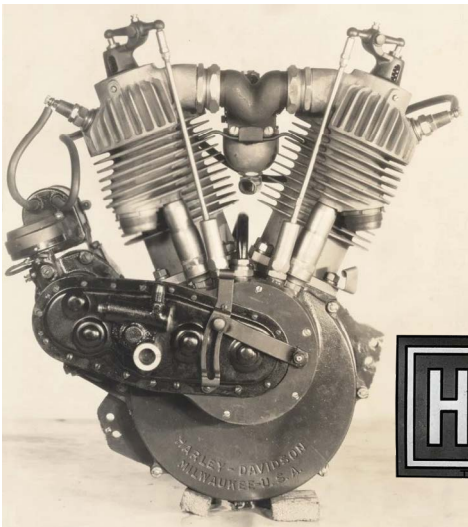




홍보와 마케팅의 할리데이비슨

할리데이비슨은 모터사이클 회사이지만, 단순히 모터사이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들은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필요와 그 가치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회사가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1900년대 초반은 이제 막 자동차 산업이 부흥하던 시기였다. 자동차 산업의 대표주자였던 포드에서 T형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던 1908년 직후인 1909년, 할리데이비슨은 배기량 811cc로 최고 7마력을 냈던 자사 최초의 V트윈 엔진을 개발하면서 아메리칸 V트윈 모터사이클 시대에 합류했다. 연이은 1910년은 그 유명한 할리데이비슨의 바 앤 실드 로고를 처음으로 적용한 시기로 기록됐다.

현대에는 큰 배기음이 마치 할리데이비슨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경향도 있지만, 초창기 할리데이비슨은 ‘사일런트 그레이 펠로우(조용한 회색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당연히 배기음이야 있었겠지만, 그 밖의 다른 소음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 있는 엔지니어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상대적으로 속도를 경쟁하는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 땅으로 들어온 이름난 모터사이클들은 모두 주말의 레이스를 통해서 성능을 과시하고 그 명성으로 모터사이클 판매를 이뤄나가고 있었다.



할리데이비슨의 V트윈 엔진은 1909년부터 시작됐다



뉴 잉글랜드 매장 바 앤 실드 로고 & 사일런트 그레이 펠로우



바 앤 실드 로고

1901

21세의 청년 윌리엄 실베스터 할리가 그의 친구인 아서 데이비스 시니어와 함께 자전거에 얹을 엔진의 설계도를 완성

SINCE  
1903

1903

할리데이비슨 창업, 윌리엄 할리와 아서 데이비스가 그들의 첫 모터사이클 시리얼 넘버 원을 만들

1906

현재는 주노 대로(Juneau Avenue)로 명칭이 변경된, 체스트넛 스트리트(Chestnut Street) 부지에 약 683m<sup>2</sup> 면적의 새 공장을 건설

1907

아서와 윌터 데이비스의 형제인 윌리엄 A. 데이비스가 밀워키 도로 및 철도 공사를 그만두고 할리데이비슨 모터 컴퍼니에 합류

1908

포드 T형 자동차 생산 시작류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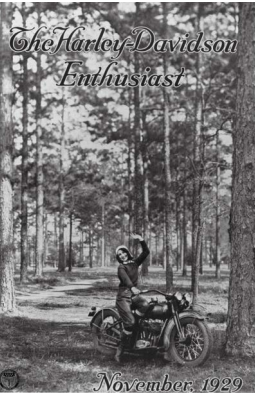
할리데이비슨 최초의 V트윈 개발, 811cc로 최고 7마력



레이스 성과



레킹 크루



엔수지아스트

1910

바 앤 실드 로고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 트레이드 마크로 등록한 것은 1911년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

1911

F 헤드 V형 2기통 엔진을 할리데이비슨에 적용하기 시작함, F 헤드 엔진은 1929년까지 사용됨

1912

할리데이비슨을 처음으로 일본 제국으로 수출함, 주노 대로에 6층 총 27,871m<sup>2</sup> 규모의 공장 건설

1913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고속도로인 링컨 하이웨이 완공

1914

할리데이비슨이 정식으로 레이스에 참여하기 시작함. 수많은 승리로 레킹 크루(Wrecking Crew)로 불림, 할리데이비슨 최초의 사이드카

제 1차 세계 대전 발발

1915

할리데이비슨 최초의 3단 변속기 적용

1916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터사이클 잡지인 '더 엔수지아스트'(The Enthusiast : A Magazine for Motorcyclists)'가 발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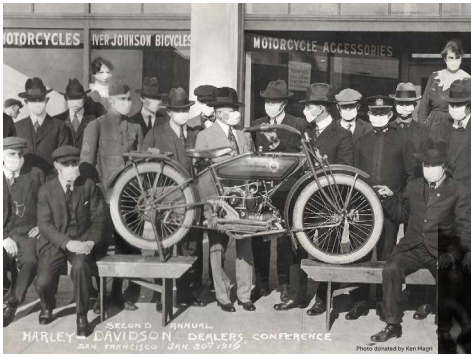
골곡의 역사

할리데이비슨이 레이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딜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모터 사이클링을 전파하고 있던 시기였던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 그리고 1917년에 미국 이 참전을 선언하면서 할리데이비슨은 자사의 전체 모터사이클 생산량(약 2만 대)의 약 절반가량을 미군을 위 해 납품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민간을 위한 모터사이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등에 업고 생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으니 그들로서는 썩 나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1918년 1차 세계 대전의 종전 이후,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처럼 심각했다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다. 미국 캔자스 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독감의 여파는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것 이상이 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당연한 일. 이 시기 할리데이비슨은 전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제조사로써 67 개 국가에 약 2,000개에 달하는 딜러를 갖추고 있었는데, 판매량 감소는 치명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이 위기 를 극복하고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레저 스포츠 활동의 도구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여성 라이더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하 지만 판매량 감소는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약 2만 대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들은 1923년에 이르러 팩토리 레이싱팀을 해체하고 의류 및 액세서리의 공식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등 수익을 최대한 확보하 기 위해 노력했다.

할리데이비슨은 뿐만 아니라 1918년 이후 단종되었던 단기통 모델을 재생산하기도 했다. 다양한 수요층을 만 족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은 물론 V트윈 엔진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런 예 는 최근의 모터사이클 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1차 세계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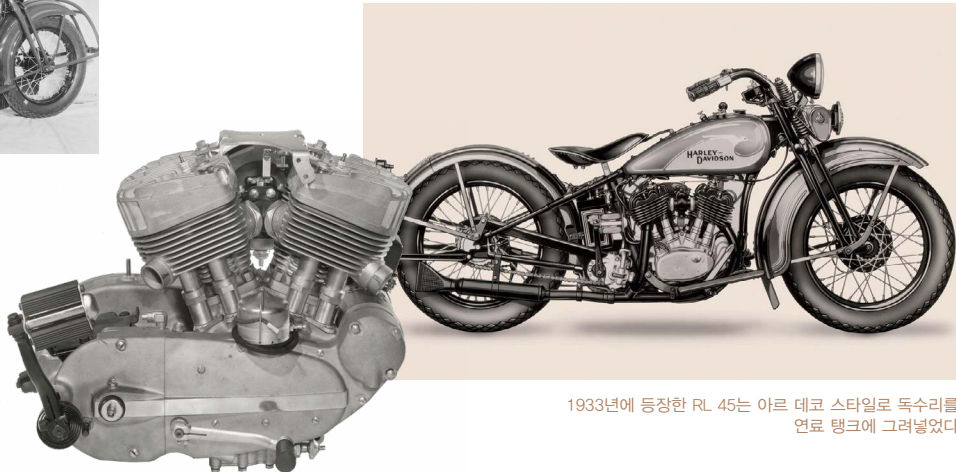
1919년 딜러 컨퍼런스 with 마스크



1920년대 레이싱 팀의 마스코트 돼지



삼륜형 서비



1929년부터 사용된 플랫헤드 엔진

1933년에 등장한 RL 45는 아르 데코 스타일로 독수리를 연료 탱크에 그려넣었다

1917

미국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1918

생산량의 절반(약 2만 대) 정도가 미군을 위해 공급됨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스페인 독감 유행

1919

새로 배치형 수평 대향 엔진을 탑재한 19W 스포츠 트윈 출시

1920

모터사이클 판매량 감소로 모터사이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광고 전개, 세계 최대의 모터사이클 제조사로 67개 국가에 2,000여 개의 딜러를 갖추게 됨

1921

모터사이클 판매량 1만 대 수준으로 감소

1922

JD 및 FD 모델 출시, 여성 라이더를 확대하고자 하는 광고 실시

1923

팩토리 레이싱 팀 해체, 의류 및 액세서리 공식 카탈로그를 제작

1924

가장 오래된 할리데이비슨 오너스 클럽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1978년까지 유지)

1925

물방울 모양의 연료 탱크가 처음 적용됨

1926

1918년 이후 단종되었던 단기통 모델의 재생산

1927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할리데이비슨 오너스 클럽인 할리데이비슨 클럽 프라하 설립

찰스 린드버그가 최초로 단독 대서양 횡단 비행 성공, 스탈린의 러시아 집권

1928

최초의 트윈 캠 엔진이 JD 모델에 적용됨

1929

이후, 1973년까지 사용되는 플랫 헤드 V트윈 엔진을 적용한 D 모델이 출시됨, 연간 21,000대 수준으로 판매량이 감소, 일본에서 라이선스 생산이 시작됨

10년간 이어지는 미국의 1차 대공황이 시작됨

1932

두 개의 리어 휠을 사용하여 화물 운송을 위한 적재 공간을 갖춘 서비 카(Servi-Car)를 출시함

1933

연간 4,000대 수준으로 판매량 급감, 아르데코 스타일의 독수리 그래픽이 처음으로 적용되며 할리데이비슨 그래픽 디자인의 시초가 됨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리로 선출





홈페이지  
www.harley-korea.com



유튜브  
www.youtube.com/harley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arley.korea



네이버 포스트  
post.naver.com/harley-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rleykorea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mmxoxbT

## 01 January 할리데이비스 버추얼 론칭 2023

지구 전체에 공개하는 할리데이비스 2023년 새로운 라인업 온라인 론칭.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티셔츠 백프린트 그래픽 공모전 \*1월~2월  
할리데이비스 티셔츠를 직접 디자인해 보세요.

## 02 February 2023 웨이크업 투어

겨우내 잠든 모터사이클을 깨워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준비하는 시즌 온!

## 03 March 할리데이비스 창립 120주년 기념 오픈하우스

할리데이비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앞에서 120주년 기념 모델을 공개합니다. 전국 12개 지점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 04 April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새 지점 오픈

인천 송도점, 인천 서비스센터,  
충남 천안점에서 시작될 할리데이비스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주세요.

##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창립 24주년 이벤트

대한민국에 할리데이비스를 정착시킨  
저희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 라이드 레시피 \*4월~9월

할리데이비스 코리아가 제안하는 새로운 라이딩 루트!!

## 05 May 할리마차

라이더에게 할리데이비스 코리아가 직접 다가섭니다. 움직이는 할리데이비스 매장!!

## 06 June 모토피싱

모터사이클 라이딩과 낚시의 조합.  
아웃도어 레저의 새로운 지평 확장!

## 07 July 미국투어

‘할리데이비스를 타고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것’은 모든 라이더의 버킷리스트이자 꿈일 것입니다. 120주년 기념 밀워키 홀커밍 행사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꿈을 이뤄드립니다.

## 09 September 제25회 코리아 내셔널 호그렐리

국내 모든 할리데이비스 라이더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벤트. 할리데이비스에 진심인 H.O.G.™ 멤버들의 리유니온.

## 11 November 패밀리 투어

할리데이비스 라이더와 그들의 가족까지 즐길 수 있는 거대 이벤트.

※ 해당 행사들은 기상 사정 등의 변수로 취소 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3 Harley-Davidson® Schedule

할리데이비스는 2023년으로 브랜드 탄생 1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리데이비스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모든 라이더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할리데이비스 코리아의 2023년 계획들을 소개합니다.







A BLEND OF OVER 120 YEARS OF AMERICAN BRANDS

2023. 2. 7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와 한국GM이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GM은 1900년, 할리데이비슨은 1903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정통 아메리칸 브랜드입니다. 오프로드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멋진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아메리칸 모빌리티의 유산이 2월 7일 서울의 세빛섬에서 공개됐습니다.



2023. 2. 25

그 어떤 모터사이클 브랜드보다도 빠른 시즌 – 온은 올해도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전국의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지점들에서 출발한 라이더들은 모터사이클의 단점을 깨우고 2023년 시즌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라무복(안전한 라이딩, 무사 복귀)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긴 겨울을 마치고 돌아온 봄처럼,  
2023 웨이크업 투어



## 내 차와 지구를 위한 선택 청정 프리미엄 휘발유의 시작

국내 고급 휘발유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을 이끌어온 SK에너지가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또 한 번 앞서갑니다.

기존 고급 휘발유에 '청정성'을 더해서  
내 차 엔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배기가스 발생을 감소시켜 환경도 보호하는  
SK엔크린 솔룩스 플러스

내 차를 아끼는 만큼  
지구도 생각한다면

EnClean  
**solux plus<sup>+</sup>**

## 자산관리도 예술로 하나은행 아트뱅크

아트가 자산이 되는 하나은행 아트뱅크



### 품위 있는 하나아트뱅크 서비스

국내 은행 최초 수장고 서비스 : 손님 보유 미술작품 보관 및 전시  
프라이빗 아트페어 : 하나 VIP 손님만을 위한 전시 관람 프로그램  
하나 아트 클럽 : 미술 애호 손님을 위한 VIP 커뮤니티 멤버십  
미술 아카데미 : 입문 단계부터 컬렉터까지 수준별 강연

### 품격 있는 하나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패밀리오피스 & 트러스트 : 초거액 자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The First 서비스 : 절세, 기업승계 컨설팅 등 전문가 서비스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서비스 : 손님의 투자성향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자산배분  
디지털PB : 영업점 방문 없이 자산관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비대면 서비스